

경남기업



사전예방 · 안전으로
센텀시티의 트렌드를 창조한다

- 경남기업 부산 WBC the Palace 현장 -

취재 | 최종덕 기자

10업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건축물들은 부산 해운대 앞바다와 어울리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볼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산 센텀시티에 지어지는 또 다른 초고층 랜드마크. 경남기업에서 시공하고 있는 WBC the Palace는 부산시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품으로 요코하마 페리터미널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설계사무소인 영국의 F.O.A사가 설계해 착공 이전부터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일 년 남짓 남겨진 준공으로 서서히 그 자태를 차츰 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이곳 경남기업 현장의 근로자와 직원들은 하루하루 무재해 준공을 위해 굵은 땀을 흘리고 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전으로 무장되어 있는 경남기업 부산 WBC the Palace 현장을 찾아 그들의 안전 노하우를 들어 보았다.

안전마인드 관리는 현장 입구에서부터 시작

박순은 현장소장은 안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안전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함께 지켜나갈 때 곧 건설현장은 무재해 준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현장 소장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신념은 근로자로 하여금 올바른 안전의식을 형성시키고, 이는 곧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낸다. 이곳 경남기업 부산 WBC the Place 현장에서는 현장 입구에 출입자 지문인식 Gate를 설치하여 근로자 개인에 대한 DB를 관리한다. 인력의 이동이 잦은 건설업의 특성 상 출입하는 근로자가 바뀔 수 있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도 현장에서 일하게 되어, 자칫 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현장 외부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지만 현장 출입이 가능해지고, 이런 철저한 사전 통제는 안전의식이 낮은 근로자의 현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아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안전작업절차서는 아름다운 WBC the Palace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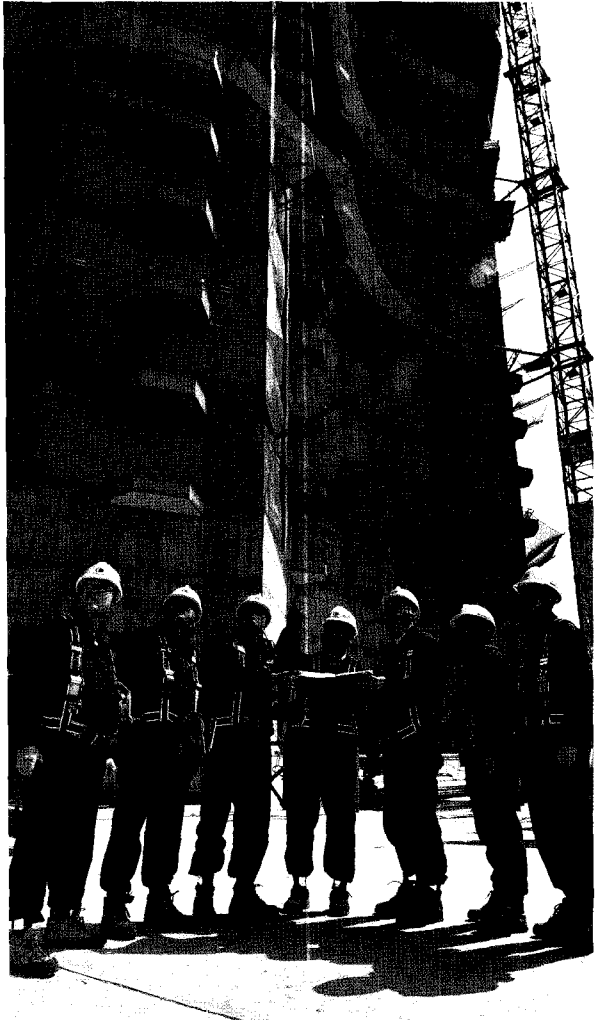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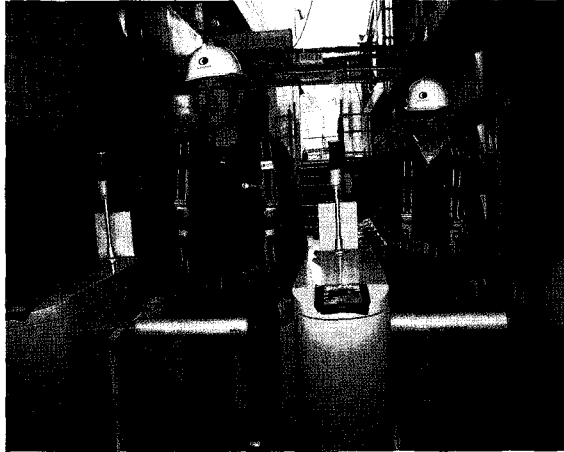
외형이 도출된 발코니가 건축물 전체를 휘어감아 올라가는 듯한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조감도조차도 주변 건축물을 앞도하며 서서히 본체를 들어내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설계사무소가 디자인한 건축물답게 센텀시티의 명물 건축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운 건축물은 시공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다. 그래서 고난도의 시공기술에서 오는 위험요소도 다른 어떤 시공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WBC the Palace 현장은 안전을 기반으로 예술적 건축물을 극대화해가고 있다. 먼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표준화하여 안전작업절차서를 만들었고 이를 기초로 모든 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발코니 공사에 있어서는 안전팀장을 비롯해 안전관리자는 상부와 하부 양쪽에 배치시켜 실시간 안전작업을 감시한다. 건설현장 특성상 혹시 발생할지 모를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작업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일도 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작업에 있어 안전작업절차서를 기반으로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곳은 51층까지 시공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고객이 입주하는 그날까지 무재해를 사수할 것이다.

'부산'을 걷다 보면 어디에서나 바다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시장, 해안선에 자리 잡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상업시설과 레포츠시설 등 바다만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일본 도쿄에 롯본기힐스가 있다면 우리나라 부산에는 센텀시티가 있다. 부산 센텀시티는 21세기 정보화·국제화 시대를 맞아 정보, 업무, 관광, 상업, 주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갖춘 인간·환경·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첨단 미래도시를 표방하며 건설된 프로젝트 도시이다.

안전한 WBC the Palace 현장에 “사전안전성평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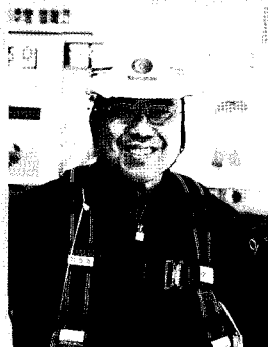
오피스텔 현장으로 51층이라는 초고층 현장인 이곳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도, 낙하 등 모든 재래형 재해의 가능성은 항상 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자칫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가까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WBC the Palace 현장에는 “사전안전성평가”를 도입하여 작업이 이행되기 이전에 모든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제거한다. 협력사가 주체가 되어 평가가 진행되고 여기서 도출된 사항은 안전관리자 등 경남기업 직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 신속히 위험을 제거한다. 이러한 사전안전성평가를 통해 개구부는 발생즉시 제거되고, 고소작업원들에게는 안전교육과 안전보호구 지급이라는 필수조치로 추락재해 발생 가능성을 제로화 한다. 이밖에도 추락낙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안전방망이 시공되고, 외부 울타리 낙하물 방호선반을 시공하여 현장 주변을 소통하는 일반 시민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는 이들의 모습이 의로워 보이는 순간이다.

부산 센텀시티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WBC the Place, 그 화려한 모습을 무사히 완성시키기 위해 그리고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박 순 은 현장소장

후면에만 잡아도 88%의 산재가능성도 잡을 수 있어.. 건설현장에서 중대형 재해는 기본을 무시한 공사수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 재해의 88%가 불안전행동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기본에 충실하면 산업재해의 88%는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장은 이러한 기본취지에서 안전경영 방침을 정하고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 작업이 안전감시인이 되어 일일 한 가지 이상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1%의 안전지적과 99%의 확인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의 기본인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자로 안전한 현장을 가꿔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경영은 부산 센텀 현장에서도 안전한 현장으로 거듭나게 했고 앞으로도 현장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인 안전 활동으로 무재해 준공을 이룩할 것입니다.



김 성 민 안전팀장

현장은 편안해야 하는 법, 그것이 바로 안전이다. 현장이라 하면 먼저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이 항상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죠. 안전은 사고 없는 현장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구성원 가족의 행복도 보장하는 수단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활동을 중시하고, 분위기 조성으로 근로자의 마음을 열게 하여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급변하는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새로운 안전기법을 벤치마킹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현재 저는 기술사 자격 취득에 도전하고 박 사고정을 공부하며 늘 새로운 지식과 전문성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되는 그 날까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맡은바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